

# 민생경제 회복 집중...광주시, 2회 추경 5천670억 편성

## 시민생활 안정·미래기반 설계 중점 소비쿠폰·모빌리티 AX실증랩 구축

광주시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5천670억원을 편성, 13일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으로 광주시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8조891억원 대비 7.0% 늘어난 8조6천561억원이다. 광주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경기 부양 및 민생 안정 기조에 맞춰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경제 위기에 대응한 민생경제 회복

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민생 회복 지원, 국정과제 이행 기반 마련, 자연재난 대응 등 3개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고물가 등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해 소비 촉진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 회복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3천683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66억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원 15억3천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9억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5억9천만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1억8천만원 등을 반영했다. 광주시는 이번 예산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서민 가계 부담 완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미래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선 모빌리티 AX실증랩 구축 10억원, AI모빌리티 국가시험도시 사전기획연구 1억5천만원, 피지컬 AI 기반 미래차 산업 혁신클러스터 기획 4억원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 사업들은 'AI 중심도시 광주' 실현과 '미래

산업 전환'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위기에 따른 여름철 폭염·폭우 등 자연재난에 선제 대응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호우 피해 응급복구 10억원, 호우 피해 재난대책 20억원, 집중호우 폐기물 처리 재해 복구 2억 1천만원, 전통신장 전기·가스설비 복구 지원 700만원 등이다. 또 시민토론회를 통해 추진 의지를 밝힌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예산(217억원)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 예산(9억8천만원)도 편성해

시민 편의 향상과 교통 복지 확대에 나선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2회 추경은 정부 추경 방향에 부합하는 민생 회복 중심 예산으로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 도약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국고보조사업의 시비 매칭분에 대해 세출 구조조정과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재정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연말 정리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변은진 기자

## 신수정 의장 "2호선 공사 속도보다 안전이 우선"

### "219정거장 인근 건축물 안전 문제 행정 편의 앞선 것 아닌지 성찰을"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은 13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시민 안전 위에 세워져야 할 공공의 기반인 만큼 속도보다 안전이, 개통보다 신뢰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난 6월 안전사고가 발생한 도시철도 2호선 219정거장 인근 건축물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3개소 중 11개소가 E등급, 2개소가 D등급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점검이 공사를 담당하는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아닌,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에서 진행했다는 사실"이라며 "공사 주체가 직접 점검을 나섰다면 담당자의 책임 문제와 함께 전 구간 정밀 안전점검의 필요성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신 의장은 "1단계 공사의 충분한 안전점



검 없이 7공구와 10공구 재입찰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기정 시장은 12월22일까지 도로포장을 완료하지 못하면 시장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심각한 안전 문제가 드러난 이 시점에 속도만을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신 의장은 "시민 안전보다 행정 편의가 앞선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며 "시의회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공사의 최고 목표는 속도가 아닌 시민의 안전이다. 실제 광주시는 지난 7월 국한호우로 침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즉각 공사 중단 조치를 하고 안전 점검 후 공사를 재개했다"며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광주시의회가 13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24일까지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5건, 동의안 42건, 의견청취안 1건, 결의안 1건, 보고안 13건 총 72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광주시의회 제공>

## 흥기월 "광주 야간관광 활성화 적극 나서야"

### 5분발언서 "경쟁도시에 뒤처져" 비판 활성화 인식 제고·공모사업 대응 주문

광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야간관광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흥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은 13일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흥 의원은 "야간관광은 관광객의 체류 시간과 소비를 늘리는 핵심 분야로 전략·능동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광주시는 이미 '야간관광 진흥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7년으로 계획 수립을 미루는 등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또한 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부터 인천, 부산, 대전 등 10개 도시를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아무런 준비 없이 경쟁 도시들에 뒤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흥 의원은 실천 방안으로 야간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가 공모사업 적극 추진, 콘텐츠 중심의 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관광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여건 및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 도립도서관 복합문화공간 '문화마루' 개관

### 33억 투입 북카페·커뮤니티 공간 조성 전시·음악회·오디오북 체험 등 행사도

전남도는 13일 전남도립도서관 4층에서 '책 속에 전남의 미래가 있습니다'를 주제로 문화마루 개관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윤명희 전남도의회 경관위원장, 나광국·최선국·최미숙 도의원, 도내 공공 도서관장 50여명 등 100여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문화마루는 전남도립도서관 4층 유휴공간(1천252㎡)을 활용해 북카페, 커뮤니티 공간, 체험·전시 공간으로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총사업비 33억원을 투입해 약 2년에 걸쳐 조성했다. 지난 9월1일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에 공식 개관했다. 전시·공연·체험·커뮤니티 기능을 두루 갖춘 문화마루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작가 전시,

북콘서트, 작은 음악회, 오디오북 체험, 필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개관 행사에선 '히어로 별문쇼'와 목포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도립도서관의 성장 과정과 미래 비전을 담은 홍보 영상 상영, 2025년 출간 가정 책 전달식, 개관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또한 공공도서관 4곳(순천시립신대, 광양용강, 여수이순신, 화순열린)과 공무원 10명, 자원봉사자 2명, 다독 가정에 도서관 발전 유공 표창도 수여했다. 순천시립신대도서관과 광양용강도서관은 2024년 공공도서관평가에서 최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영록 지사는 "문화마루는 책과 예술, 음악을 매개로 도민들이 사람들과 교류하고 치유받는 열린 공간이 될 것"이라며 "책 읽는 도민이 행복한 전남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양시원 기자

제3회 대한민국시인낭송작가연합회 축제

# 대한민국 시인예송마스터페어

때 : 2025. 10. 18. (토) 13:00  
 곳 : 라마다프라자충장호텔 12층 연회장

| 주 최 : 대한민국시인낭송작가연합회  
 | 주 관 : 대한민국시인낭송작가연합회 광주지역위원회, 동행  
 | 후 원 : 광주광역시, 가야마실파크골프, 도서출판 신성, (사)정나눔, 바디건강초대체의학